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대회 사실 밝혀지다

‘홍제일기’에 개최 일자·진행과정 상세히 기록… 실제 존재여부 논란 마침내 종지부

국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돼 실제적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사실관계가 입증됐다.

그동안 명확치 않았던 백산대회의 날짜 역시 1894년 3월26일(음력)부터 29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규명됐다.

18일 전북 부안군 백산면사무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재조명 학술연구총회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용역은 역사학계 일부에서 혁명의 과정 중에 있었던 백산대회의 실체를 부정하며 기념일 제정 후보에서도 제외하는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백산대회의 혁명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해 부안군이 발주했던 사업이다.

용역은 (재)한국역사문화원이 맡아 수행했고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에 대한 위상과 실제의 검증, 역사적·지리적 실태, 자료의 조사·수집 결과,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주 보고자로 나선 성주현 문화원장(청암대 교수)은 부안과 관련한 혁명자료인 ‘석남역사’와 ‘홍제일기’, 과거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이중 ‘홍제일기’는 일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10여년 간의

학계의 주요 논제에서 제외됐던 백산대회에 대해 일지는 물론 혁명의 초기 전개와 백산대회를 전후해 발생했던 정황, 백산대회의 진행 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자료로 소개됐다.

내용 중에서는 “23일 날씨는 어제와 같다. 동학교도 4000여명이 남으로부터 다시 고부 백산에서 모인다고 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 혁명의 과정에서 백산이 주집결지 또는 주무대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7일 …,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진을 옮겼는데 오늘 우리 고을에 들어온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어 그간 논란이었던 백산대회의 실체를 확실히 주고 있다.

성 원장은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2004년 토론회에서 당시 학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어떻게 백산대회의 위상이 격화되고 기념일 후보에서 제외됐는지 상세히 알렸다.

이어 동국대 조성은 교수가 두 번째 보고자로 나서 ‘홍제일기’를 기반으로 한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했다.

조 교수는 “홍제일기의 발굴·조사로 그간 학계의 백산대회에 대한 존재 여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하기도



지난 18일 오후 부안군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재조명 학술연구총회 최종보고회’, 용역을 맡아 수행한 (재)한국역사문화원의 성주현 원장(청암대 교수)이 백산대회의 실제적 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했다. 보고회는 끝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박대길 지역사료조사위원으로부터 부안면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기념사업 단계 명칭의 적절성, 추진 주체의 조직화, 군의 지원책 유도방안, 전국 규모의 기념행사 추진, 지속적인 학

술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백산대회를 기반으로 한 혁명기념관 조성 관련 유적지 지정·정비 등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후보군에 백산대회일(음력 3월26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인진수 기자



‘한국민속예술사진’ 발간

민속극·민속놀이 다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다섯 번째 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진’ (민속극·민속놀이 편)을 발간했다.

2004년 ‘한국세시풍속사전’을 시작으로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화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까지 전체 8가지 주제 중 다섯번째다. 앞으로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발간물 외에도

웹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총 600여명의 연구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했고 집필한 원고자 7만여명에 달한다. 사전 웹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로는 6000여개의 표제어와 해설, 8만여장에 달하는 사진, 2000여건의 영상, 200여건의 음원 등이 있다.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극 편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관련한 의례에서 출발해 예능으로 발전한 연극 양식인 가면극과 인형극, 그리고 굿놀이들 다뤘다. /인진수 기자

밸리록에 ‘레드핫칠리페퍼스’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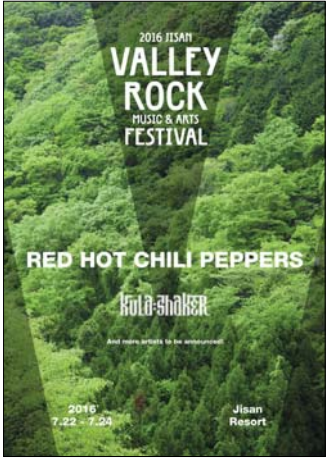
4년 만에 안산에서 지산으로 다시 무대를 옮긴 2016 지산 밸리 록 뮤직 & 아트 페스티벌(밸리록)이 19일 1차 아티스트 라인업을 밝혔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 공개한 1차 라인업에는 14년 만에 내한하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 결성 20주년을 맞은 ‘플라 세이커’가 이름을 올렸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결성 33년차의 베테랑 록밴드로, 2012년 로큰롤 명예의전당에 오른 얼터너티브&펑크 록의 아이콘이다. 특히 그래미어워드, 브릿어워드 등 5대 주요 시상상을 휩쓸고, 대표 앨범인 ‘블러드 슈거 섹스 매직’으로 97주 연속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의 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최근 6년 만에 새 앨범 ‘K2.0’을 발표한 ‘플라 세이커’는 독보적인 사운드로 한국 팬들을 매료시킨 영국의 얼터너티브 밴드다. 신비주의 색이 짙은 사이키델릭 사운드로 종교적인 분위기를 구현하며 독특한 음악 세계로 사랑 받았다.

한편, 밸리록 측은 ‘플러그 인 뮤직 & 아트(Pug in Music & Arts)’를 콘셉트로 자연친화적인 장소에서 음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확장된 페스티벌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로 페스티벌의 이름을 정했



다. 지산에서 만나는 맑은 자연과 좋은 음악,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의 피로를 씻어 낼 수 있는 정서적 충전의 장을 열 예정이다.

밸리록 측은 “페스티벌의 본질은 음악인만큼,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음악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연·방송·디지털콘텐츠 등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도쿄서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

한국관광공사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17, 18일 일본 도쿄에서 ‘2016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관광공사는 한국방문위원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어행업협회 등 관련협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관광공사, 공연사 등의 100여명으로 프로모션단을 구성했다.

17일에는 도쿄 그랜드히얏트 호텔에서 양국 관광업자 300여명이 참가한 트레이드박스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개막식을 열었다.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이 한국 방문의 해 내용을 설명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송승환 총감독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소개했다.

18일에는 도쿄 메트로파크 홀에서 소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난타’ 공연, 그룹 ‘초신성’ 공연을 선보였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다무라 히카히로 일본관광청 장관, 일본전국여행협회(ANTA) 회장이자 자민당 공무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유홍수 주일한국대사, 다가와 히로미 일본여행업협회장, NHK 방송총국장 등을 만났다. 일본 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유럽과 같이 하나의 관광벨트권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사장은 자년에 한국인 400만명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보다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협력을 것을 요청했다. /인진수 기자

극작가 박조열씨 86세로 별세

‘오 장군의 발품’ 등 유명한 희곡작품 남겨

‘오 장군의 발품’으로 유명한 극작가 박조열(86)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몇년간 신부전증으로 투병해 왔다.



故 박조열 작가

1930년 함남 함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복 후 한국 희곡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극작가다.

드라마센터 연극 아카데미(현 서울예술대학) 연구과를 수료한 그는 데뷔작 ‘관공자대’ (1963)나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한 ‘토끼와 포수’ (1964) 등에 세련되고 섬세한 유머 감각을 도입, 60년대 연극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가면과 진실’, ‘조만식은 살아있는가’ 등으로는 사실주의 극과는 다른 양식을 제시하며 한국의 새뮤얼 베케트로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1974년 발표한 ‘오장군의 발품’은 6·25 동안 당시 최전방에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혈육,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평화의 열망을 담았다.

1975년 극단 자유극장이 명동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했으나 개막 전 공연불가 판정으로 막을 올리지 못한 작품이다. 14년만인 1988년 극단 미추에 의해 공연됐다. 그해 백산예술대상 작품상, 희곡상, 연출상 등을 수상했다. 199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제1회 태평양 국제연극제, 1994년 서울 제1회 베세토연극제에 초청받았다. 2008년에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공연되기도 했다.

고인은 연극 논객으로서도 이름을 날렸다. 특히1986년 공연법의 위헌성을 최초로 공개 제기했다. 이후에도 공연법 개폐운동들 꾸준히 주도, 1991년의 공연법 개정에도 기여했다.

또한 희곡집 ‘이 긴 두사람의 대화’ (1974)와 ‘조만식은 살아있는가’ (1976), 평론 ‘그 한계 상황과 개선책’ (1985)과 ‘표현의 자유’ (1985) 등을 펴냈다. /인진수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ilab.com/

(2016년 2월 22일)

▷쥐띠
48년생: 문서든 움직일 때 좋은 운.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이 따른다.
84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평심하지 말고 두루 살펴라.

▷소띠
48년생: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마음도 볼도 분주한 날이다.
61년생: 부지런히 생각지도 않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된다.
85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섭생을 주의하고 건강에 신경써라.

▷호랑이띠
50년생: 동기끼리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상황에 따른 변수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던 이득이 있으니 내부적인 일은 절제한다.

▷토끼띠
51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이다.
63년생: 장심이 좀더하니 속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두루두루 베풀어라.
64년생: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는 넓힐 수 있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뱀띠
53년생: 후한에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금하게 처리하지 마라.
65년생: 여성으로써 재물을 이룬다.
77년생: 덕함이 있는 운이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절한 쉬면서 관망하라.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틀어진다.
66년생: 좋은 일하고 맺어놓는,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금전론이 약하다. 투자가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양띠
55년생: 장신적으로 많지 않은 운.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히려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한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레 오해가 풀리게 된다.
91년생: 금전론이 약하고 솔터러한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 계 전진하라.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인에서 적게 움직이면 좋다.
81년생: 기층제거는 부부분화,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후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개띠
49년생: 손해는 부를 수 있으나 시시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59년생: 원고형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1년생: 문서에 실용이 들었다.
83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이 가서 놓여질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다.
59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된다.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지는 좋지 않다.